

2020 DECEMBER

CANKS

중앙아시아 한국학네트워크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

발행일: 2020.12.15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20년 12월 12일(토)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위치한 나자르바예프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는 현장참여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4개국 8개 도시 20개 대학 및 기관에서 80명의 한국학 교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나자르바예프대
(관련기사 pp.2-3)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한국학세미나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과거 청산 비교 연구" 외

카자흐 국립대
(관련기사 p.4)

한국학주간, 중소기업연합회 장학금, 신한은행 장학금, 알마티 한국교육원 종강식 초청공연

중앙아시아 한국대
(관련기사 pp.5-7)

제 2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 제 1 회 중앙아 대학생 한국학학술대회, 한국학센터 개소식 외

카자흐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관련기사 p.8)

국립국어원-국민대 온라인 한국어교실 수료식, 김홍수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 특강

* 이 뉴스레터는 카자흐스탄 한국학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canks.asia>)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중앙아시아 인명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KazUIR&WL
Tole bi 84, Almaty, Kazakhstan
Homepage: <http://canks.asia>
E-mail: cks@ablaikhan.kz

나자르바예프대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

2020 년 12 월 12 일(토) 제 8 회 중앙아시아 한국학학술대회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위치한 나자르바예프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는 현장 참여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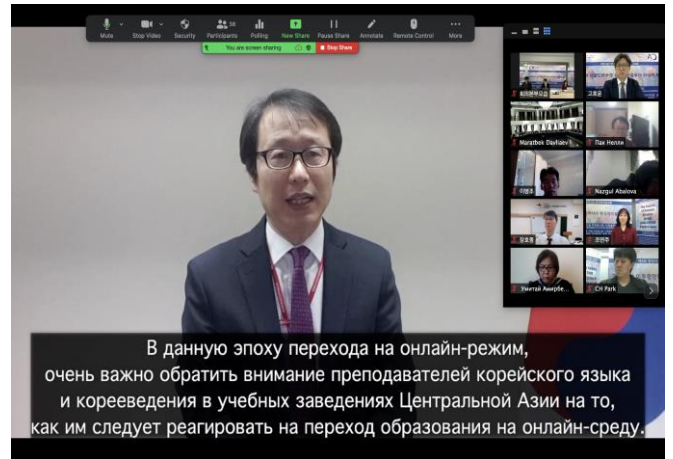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중앙아시아 한국학교수협의회(이하 중앙아 한교협)가 주최하고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센터,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하였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의 4 개국 8 개 도시 20 개 대학 및 기관에서 80 명의 한국학 교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학술대회는 박 넬리 교수(중앙아 한교협 회장)의 환영사, 구홍석 대사(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다니엘 퓨 학장(나자르바예프대 문리대), 임철우 소장(한국국제교류재단 모스크바사무소)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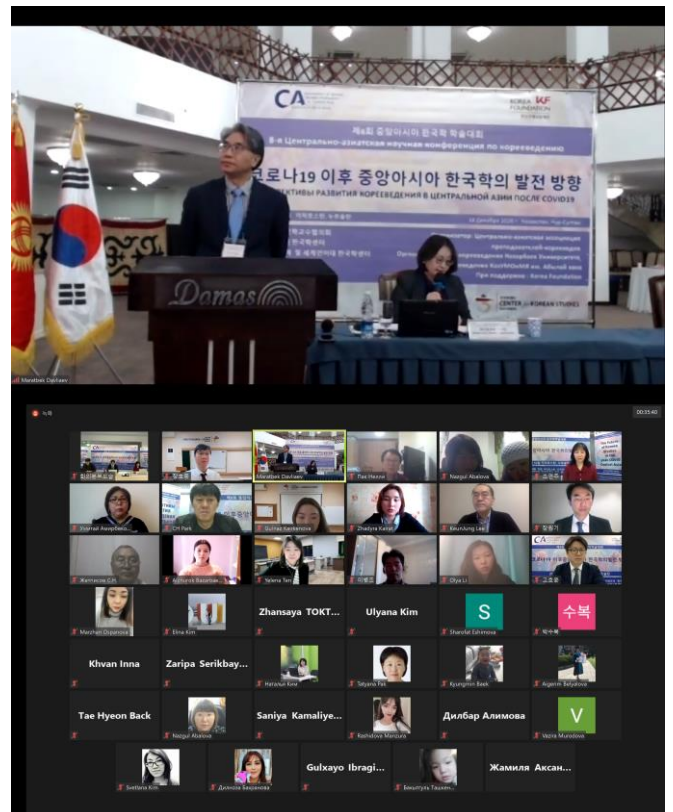
“코로나 19 이후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발전 방향”의 주제발표에서는 백태현 교수(중앙아시아 한국대)의 “키르기스스탄 한국학 온라인강의 및 원격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근중 교수(대한민국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의 “COVID-19 그리고 성공적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조연주 교수(나자르바예프대)의 “한국어 온라인 수업 교수요목 설계 연구”의 발표를 통하여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대학 교육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사태를 수습한 이후의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이어진 패널발표에서는 유라시아 국립대, 카자흐 국립대, 타라즈 국립대, 키르기스 한국대, 아라바예프대, 타슈켄트 동방대, 우즈베크 국립세계언어대, 타슈켄트 부천대, 사마르칸트 국립외대 등 중앙아시아 각 대학의 원격교육과 온라인강의 상황과 문제점을 소개하였다. 김중토의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교육과 연구 방향에 대하여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하고, 급변하는 한국학의 수요와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갖추며 효율적인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연구 및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 예전과 같은 생활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참석자들의 희망을 모아서 백태현 명예회장(중앙아 한교협)은 폐회사를 통하여 한국-중앙아시아 수교 30 주년을 기념하는 내년 대회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최할 것을 밝히면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원격 수업’에서 ‘원격’만 남고 ‘수업’은 사라져 간다



나자르바예프대

한국학세미나 개최

2020년 11월 13일 나자르바예프대학교 한국학센터의 한국학세미나 시리즈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과거 청산 비교 연구”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원국립대학교관계학과의 서지원 교수가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과거사 청산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권탄압과 부패라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각 국가의 과거사 문제를 소개한 서지원 교수는 민주화 이후 이 두 문제에 대한 정부와 사회 차원의 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인권과 부패라는 과거를 동시에 다룸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바르게 직시하고 적절한 보상과 처벌, 그리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본교 학생과 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을 통해 한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본 행사의 강연 영상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XqQTtkGT3u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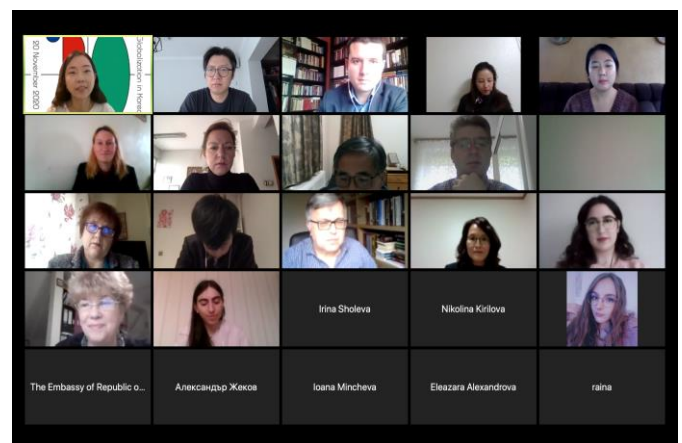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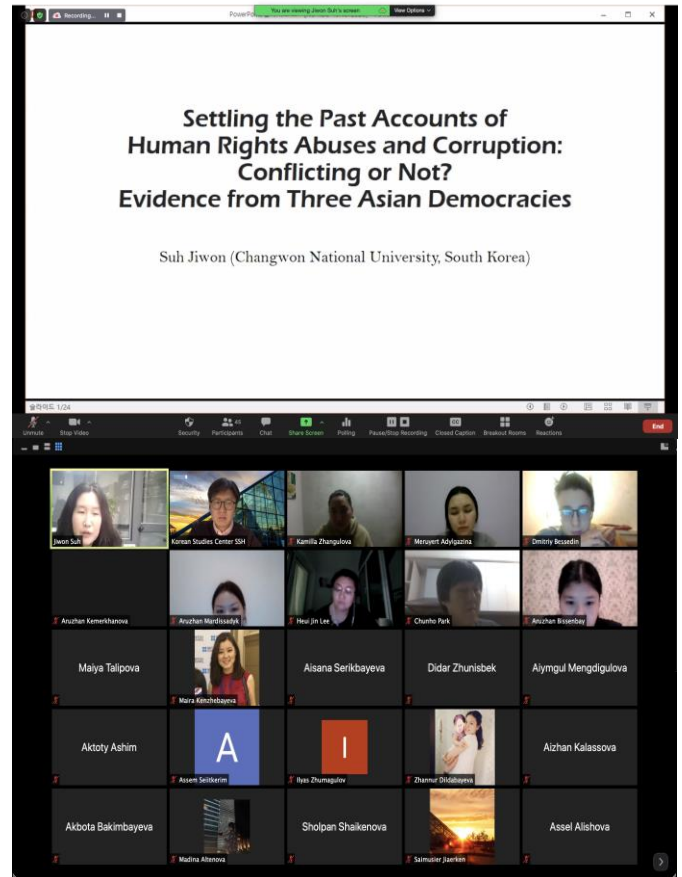
한국학토크콘서트

2020년 10월 27일(화) 나자르바예프대학교 한국학센터에서는 본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와 함께 K-Talk@NU “나의 특별한 한국 성공기”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의 연사로 초청된 셰이크하 미나 (주)피에프디 해외 DB (해외영업 및 영업개발) 팀장은 한국 유학생생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들려 주었다. 또한 비자 신청과 귀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한국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6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강연 후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부회장 나제르케 무홀리소바의 진행으로 연사가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즉석 문답 시간도 가졌다. 본 행사의 강연 영상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youtu.be/MzMBNmTgWM>

국제학술대회

나자르바예프대학교 한국학센터의 고태운 교수(정치학)는 2020년 11월 20일 (금) 불가리아 소피아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올해 한국-불가리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확대 개최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학자들은 물론,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 언어, 문화, 정치, 외교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한국학 연구 성과를 나누었다. 고태운 교수는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이 한국의 소프트파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주간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와 전통으로 자리잡은 “한국학주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카자흐 국립대학교 국제관계학부에서 학생과 교직원 15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연례행사로 “한국의 문화역사 퀴즈대회”, “한국어 경시대회”, “한국음식문화체험의 날”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고, 마지막날에는 “대사와의 만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마티 한국총영사와의 만남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한 주일 동안의 한국학주간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한국학주간”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한국의 정부기관, 기업체 구성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중기업 장학금

2019년 12월 4일 카자흐스탄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 성적이 우수한 총 5명의 한국학과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국중소기업연합회는 매해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중 우수하고 근면성실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연합회는 카자흐스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신한은행 장학금

2019년 12월 23일, 카자흐 국립대에서는 신한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신한은행은 이미 수년째 한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본 행사에서 총 5명의 한국학과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았다. 신한은행은 매해 한국학과 졸업생들 중에서 우수인력을 추천받아 은행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한국학과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알마티 한국교육원 종강식 초청공연

알마티 한국교육원은 매년 4,000여 명의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는 곳으로 매학기 종강식에서 수강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학생들이 그 동안 갖고 닦은 한국노래, K-POP 댄스 등의 장기자랑을 펼친다. 2019년 12월 13일 가을학기 종강식 행사에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K-POP 댄스팀(5명)이 초청되었고, 2달여 간의 연습을 통해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K-POP 등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데에도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아시아 한국대

제 2 회 한국학올림피아드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뜻 깊은 대학생 대상 한국학 관련 대면 행사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개최되었다. 2020 년 11 월 15 일(토) 비슈케크 소재 다마스 호텔 프로그레스홀(12 층)에서 제 2 회 키르기스스탄 한국학올림피아드(이하 올림피아드)가 개최되었다. 본 올림피아드는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한국학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올림피아드는 키르기스스탄 당국의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이 되었다. 행사장은 참가자들의 거리두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가 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은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산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는 등 코로나를 대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였다.

중앙아시아 한국대 백태현 교수(KF 파견교수)의 주도에 진행된 본 대회는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세리쿨로바 미나라 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하태역 대사의 축사가 있었다. 2019 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여러 대학에서 선발된 24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그리고 한국어 및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참여를 하여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나 제 1 회 대회 때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학생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하태역 대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한국이 이루어 온 정치경제적 업적들은 키르기스스탄의 국가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한국에 관한 종합적인 학문으로서 한국학이 키르기스스탄에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의 선택에 찬사를 보낸다. 오늘 진행되는 올림피아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잔치’이다. 그동안 익혀 온 한국학 실력을 올림피아드를 통해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본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본 올림피아드는 한국학 관련 작문과 말하기 영역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준비 기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말하기대회와 백일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 방식으로서 향후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일 오전에는 한국학 관련 분야를 주제로 한 작문이 진행되었고, 오후에는 참가한 모든 학생이 역시 한국학 관련 분야의 주제를 순서대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장시간에 걸친 대회 결과는 아르스탄베코바 굴누르(중앙아 한국대)가 대상, 탈라이베크 크즈 누르크즈가 최우수상, 잠그르카노바 알리야(이상 오시공대)가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행사를 주관한 백태현 교수는 “이번 올림피아드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있던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대면 및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한국학’ 공부에 몰두 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 의식을 스스로 재발견하는 또 다른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본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중앙아시아 한국대

제 1 회 대학생 한국학 워크숍

코로나 19의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오랜만에 한국학 관련 대면 행사가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되었다. 2020년 9월 25일(금) 비슈케크 소재 유로파호텔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1회 키르기스스탄 대학생 한국학 워크숍’은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 개소 기념으로 마련된 행사이다. 본 워크숍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가 주관하고, 주키르기스 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협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하였다.

본 워크숍은 키르기스스탄 당국의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참가자 수를 60명으로 제한하고, 거리두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가 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산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는 등 코로나를 대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이 되었다.

앞서 진행한 하 대사의 특강을 통해 참석한 학생들은 이미 상당한 한국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채 진행된 워크숍은 학생들의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배워가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보다 깊이 있게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향학열의 의지가 더욱 배가되고 있는 모습이 워크숍의 과장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되었다. 백태현 소장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학문과 사회적 실천, 사회적 실천과 학문이 상호 융합을 하며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키르기스스탄이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그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 갈 수 있는 실천적 학문이 바로 한국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 견인차 역할을 지금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자기 변화, 자기 혁신을 해 갔으면 좋겠다”고 참석한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중앙아 한국대 한국학센터 개소식

중앙아시아 한국대는 202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 한국학진흥사업단의 2020년도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9월 25일 한국학센터를 개소하였다.

향후 한국학센터에서는 한국학올림피아드, 한국학워크숍, 대학생(차세대연구자) 한국학학술대회, 한국학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지역의 한국학이 보다 발전해 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중앙아시아 한국대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10명에게는 씨앗형사업의 하나로 1년 전액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그 외 30명에게도 다양한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협력 대학인 키르기스 한국대 재학생 중에서 대학 체육장학금 1명과 한국에서 독지가가 지원한 7명, 미국의 한인 기관에서 지원한 2명(1년 전액장학금)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중앙아시아 한국대

제 1 회 중앙아시아 대학(원)생 학술대회

2020 년 12 월 5 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다마스호텔 다이아몬드홀(2 층)에서 제 1 회 중앙아시아 대학생(차세대연구자) 한국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코로나 19 사후 한국과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의 관계 및 발전 방향’이었고, 세부 주제로는 ‘현황과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 ‘키르기스스탄(중앙아시아) 국가발전과 한국의 시사점 및 역할’이었다. 본 대회는 주키르기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 중앙아시아 한국대 한국학센터와 키르기스스탄 한국어(학)교수협의회가 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후원하였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처음 시도된 본 학술대회는 2020 년 11 월 1 일부터 11 월 30 일까지 한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모든 참가 팀과 연구자는 11 월 30 일까지 발표논문과 PPT 발표문을 제출해야 했다. 따라서 논문 집필 경험이 없는 대학생 참가자들을 돕기 위해 각 팀 별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팀 별 스터디 및 자료수집을 위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대회 주최 측에서는 참가 팀과 연구자에게 소정의 연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전체 한국학학술대회 참가자 및 지도교수들의 대회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온라인 특강을 대회 준비 기간 동안 5 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된 한국학학술대회에는 대학생 참가 팀 48 명, 차세대연구자 한 팀 및 연구자 7 명, 그 외 참가자들을 지도한 지도교수 15 명도 참여를 하였다. 비슈케크 소재 대학은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였고, 오시대학교 2 팀,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1 팀, 타슈켄트 국립사법대 석사과정 1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행사는 백태현 교수(중앙아시아 한국대)가 총괄 진행을 하였다. 먼저 세리쿨로바 미나라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총장의 개회사가 있었고, 이어서 하태역 대사의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기념공연으로 중앙아시아 한국대와 키르기스 한국대 연합팀의 사물놀이 공연이 있었다. 하태역 대사는 “한 달 이상을 준비한 이번 학술대회는 키르기스스탄의 한국학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준비 과정을 통한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은 향후 키르기스스탄(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학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며 그 소감을 피력하였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주키르기스공화국 한국대사관과 처음부터 대회를 기획하고, 본 대회의 준비 및 행사를 총괄 진행한 백태현 교수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코로나 19 라는 어려운 상황 하에서 한 달 동안의 준비 기간은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참가자 3~5 명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같이 자료를 모으고, 발표 논문과 PPT 를 준비하는 과정은 이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좋은 연구 경험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 대회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중앙아시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학 차세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기를 바란다.”며 한국학학술대회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본 대회를 마쳤다.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

온라인 한국어교실 수료식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와 국민대 국외실습지원사업단(단장 이동은 교수)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0 온라인 한국어교실”이 2020년 10월 26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어 경력교원 5명과 예비교원 19명이 카자흐스탄 세계언어대 학생 90명에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강의하였다. 이후에도 아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앙아시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러시아어 자막을 더한 “예비교원과 함께하는 기초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게 된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OrUcCLBYbRWW4KxqH9Nusw/>

“2020년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 지원사업”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고려인들과 현지인들에게 현지의 요구를 바탕으로 삼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국내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학 학위과정 중인 예비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외 한국어 교수 및 학습의 수월성 제고와 이에 대한 공유와 협력 및 확산을 추구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컨택트(contact)의 시대에서 언택트(untact)의 시대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ontact)의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교수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중앙아시아 교원 교육”은 다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 ETUTLswpRikFaxwQN7Xg/featured>

온라인 수료식에 참석한 한국의 예비교원과 카자흐 세계언어대 학생들은 직접 대면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곧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김홍수 주알마티 총영사 특강

2020년 11월 14일(목) 노보텔 호텔 회의실에서 카자흐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이하 카자흐 세계언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홍수 주알마티 대한민국총영사의 특강이 개최되었다.

이날 김홍수 총영사는 “동해 그리고 독도”를 주제로 하여, 카자흐스탄 학생들에게 생소한 한일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일 양국의 주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국내외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독도와 동해 문제에 대해 한국이 주장하는 근거들을 짚어 볼 수 있었다. 또한 외교적으로 복잡한 정세를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며, 비교적 쉽게 설명하여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특강을 통해 동해의 명칭 논쟁과 독도의 영유권 분쟁의 차이와 역사적 배경, 현재 진행 상황 등을 이해한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 예정된 시간보다 길게 진행될 정도로 행사의 열기가 뜨거웠다.

한편, 본 행사는 마스크 착용, 참석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